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한 내적·외적 위기요인이 초등학생의 위기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s Inner Risk Factors and Outer Risk Factors Intermediated
by Self Concept on His or Her Resiliency

이수식(Su-seek Lee)¹⁾

김혜영(Hea-Young Kim)²⁾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hild's inner risk factors and outer risk factors intermediated by self concept on his or her resiliency at-risk. For this study, the total of 500 students in their fifth and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s in Busan and their parents were sampled, and a measurement tool is question district court. The questionnaire for the parents measured risk factors, and the questionnaire for the students measured self-concept and about the resiliency at-risk. The SPSS for Win 12.0 and AMOS 5.0 were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ub-factors of inner risk factors, which shows that the risks of students are caused not just by one of the parents but by both of them. Second, all three variables, that is, inner risk factors, self-concepts, and the resiliency at-risk, closely interact one another. The less inner risk factors of the students, the more positive their self-concept and the more the resiliency to the risk. Third, the higher the socio-economic status(outer risk factors) and the lower the degree of risk of the family, the more positive the self-concept of the students. Fourth, the higher the socio-economic status(outer risk factors) and the lower the degree of risk of the family, the more the resiliency to the risk.

Key Word : 위기요인(Risk factor), 위기대처능력(Resilient at-risk), 자아개념(Self-concept).

¹⁾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²⁾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Hea-Young Kim, Department of Education studies, Kyungsung National University,
314-79 Daeyeun Dong, Namgu, Busan 608-093, Korea
E-mail : bsuk612@hanmail.net.

I. 서론

이상적인 세계에서 학생들은 행복하며 성숙된 그리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은 우리들의 꿈일 뿐 현대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학생들에게 더욱 더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여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많은 심적 부담과 긴장으로 필연적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risk)란 학생들의 정상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조건, 가족 내의 심리적 조건, 가정·학교·사회 등의 생활 환경적 조건을 의미한다(Patricia, 1996). 서로 다른 특성과 성장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학생들은 이런 위기에 대하여 심리적, 학업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치지만 일부 학생들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심각한 학습장애 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Bradley, 1994).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나 장애를 내포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Down 증후군이나 태아성 알콜 중독, 뇌성마비와 같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 발달 초기에 성장과정과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Bradley 등, 1994). 즉 이들은 출생 시기에는 어떤 확인된 객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요인들(신체적 구조, 가족 구성, 성장 환경 등)이 성장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위기요인에 대하여 Seifer 등(1992)은 위기를 외적 위기요인과 내적 위기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외적 위기요인을 학생의 부정적인 결과를 증가시키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 직업, 가족수, 수

입액, 출생순서, 결혼가정, 실직 등이며, 내적 위기요인은 좀 더 개인의 내적인 측면으로 부모 우울증, 가족기능, 부부불화, 생활사건, 양육태도, 성격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모의 내적위기요인으로 생활사건, 가족기능, 부부불화, 부모우울증을 설정하였고, 부모의 외적위기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부모의 학력, 직업)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 위기요인들을 합산하여 산출한 값인 내적위기요인의 총체적 정도를 위기정도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즉, 학생에게 위기환경의 영향력은 사회계층,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가정환경 등과 같은 “규정된 환경(labeled environment)”(Wachs & Gruen, 1982)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중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변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계층이 하류층으로, 일반적으로 하류층은 낮은 교육수준, 불안정한 직업과 낮은 수업의 특성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생활사건, 부부역기능, 가족기능, 부부우울증 등과 같은 가정의 내적 위기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는 학생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요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른 연구에서도 경제적 결핍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나아가 가정의 위기를 가중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부적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Simons, Lorenz, & Conger, & Wu, 1992).

그리고, 학생들의 위기와 관련한 종단적 연구에서 높은 위기요인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성적이 저조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등 여러 가

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건강하고 유능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Garmezy, 1991). 예를 들면 Rutter(1984)의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정도의 학생들은 성인이 된 경우 그러한 환경을 스스로 이겨내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알콜 중독의 부모를 가진 학생들 중에서 약 4분의 1정도만 알콜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4분의 3은 정상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Garmezy, 1991).

이와 같이 우리 주위의 많은 학생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경우 위기대처능력에 따라 대처자와 비대처자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Garmezy, 1991; Rutter, 1984; Werner & Smith, 1982). ‘대처능력’의 용어는 1980년대에 진행된 범세계적이고 범 학문적으로 이루어진 공동 연구(Beardslee & Podorefsky, 1988; Berlin, 1989; Garmezy & Rutter, 1983; Rutter, 1984; Werner, 1984)에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대처할 수 있는 인간내부의 어떤 힘을 설명하기 위해 “invulnerable”, “stress-resistant”, “hardy”, “ego-resilient”, “invincible” 등과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대처능력(resilient)”이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 즉, 위기대처능력의 개념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의 내·외적 요인(신체적인 조건, 가족 내의 여러 가지 심리적 조건,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 등을 포함한 생활 환경적 조건)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인간 내부의 어떤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armezy, 1991; Rutter, 1984; Werner & Smith, 1982). 위기대처능력에 따라 대처자와 비대처자로 구분한다면, 비대처자는 위기요인들

때문에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이다. 대처자는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하는 학생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위기요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이나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특별히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를 제외하고는 이들은 대부분의 위기를 대처하고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하게 된다(Garmezy & Rutter, 1983).

이상에서 학생들의 위기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위기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위기요인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거나 이러한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어적 변인의 연구는 미미하였다. 방어적 변인이란 위기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처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성격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Benard, 1993; Gaebbarino, 1992; Garmezy, 1991; Garmezy & Rutter, 1982; Werner & Smith, 1992; Winfield, 1994; Wolin & Wolin, 1993)으로, 개인·내적 요인으로 성격(temperament), 자아개념(self-concept), 동기경향, 귀인성향 등이다(Benard, 1991; Winfield, 1994).

위기요인의 방어적 변인 중에서 자아개념(自我概念, self-concept)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나(“I” 또는 “me”)의 특성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되는 조직적이고 일관성있는 개념적 형태로 정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경험과정이거나 여러 가지 자기지각의 총체적 의미로(Eastwood, 1979),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을 후천적으로 획득되거나 형성되어지는 인간의 한 특성으로 보

고(Heyman & Gelman, 2000), 자아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도 후천적인 환경요인에 대하여 강조·논의되어 왔다. 자아개념 발달에 관한 후천적 환경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 이론으로, Cooley(1920, 1930)의 거울자아이론(the looking-glass self-theory)이 있다. 즉, 자아발달은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역할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을 때 형성되며, 가정 중심의 일차집단의 사회적 정의를 반영하는 경험을 통해 자아가 주로 발달된다고 하였다. 즉, 학생의 자아개념은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 발달되는데 부모환경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환경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생의 자아개념 형성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부모 환경 요인을 설정하여 내적 위기요인과 외적 위기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자아개념과 위기대처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 자아개념의 발달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환경 변인과 자아존중감을 변인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많았으나, 관련 변인과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극히 미미하였다. 이에 학생의 적응 문제와 적응 경향,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되, 자아개념의 동의어인 자아, 자신, 자기정체, 자기이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송인섭, 1998)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행연구도 함께 고찰하였다. 그 결과 Rosenberg(196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강하여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 독립적이며, 의존적 대인관계가 고립되어 있어 자신감과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다(최미숙, 1993 : 재인용). 즉,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인

간의 사회생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적응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미래 과업수행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높은 성취동기와 자신감으로 위기에 대하여 능동적, 적극적 대처를 하며,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은 열등감과 불안감으로 위기에 대하여 수동적,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위기대처능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학생들의 위기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에서, 외국은 학생들에게 위기대처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험, 외적 요인, 외적요인들의 연구와 방어를 가능하게 만드는 내적 요인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Patricia, 1996), 국내에서는 학생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나 학생들의 위기와 관련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종교적 위기나 국가적 위기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요인의 여러 방어적 변인 중에서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생의 내·외적 위기요인이 위기대처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즉,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방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환경적 요인(내적 위기요인, 외적 위기요인)이 위기에 대하여 어떠한 방어적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밝혀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내적위기요인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적위기요인의 영향을 받은 자아개념이 위기대처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적위기요인(사회경제적 지위)이 위기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외적위기요인(사회경제적 지위)과 위기정도의 영향을 받은 자아개념이 위기대처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위기대처 학생들은 비대처 학생들에 비하여 특별히 우세하거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자아개념)과 환경적 요인(부모의 내·외적 위기요인)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학생들이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성들을 발달시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며,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방어적 변인에 대한 지식과 결합하여 개인적, 환경적 위기요인의 효과성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학생들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예방책과 조정책을 마련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한 내적 위기요인은 위기대처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1-1. 내적 위기요인의 하위구성요인 간에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 1-2.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한 내적 위기요인은 위기대처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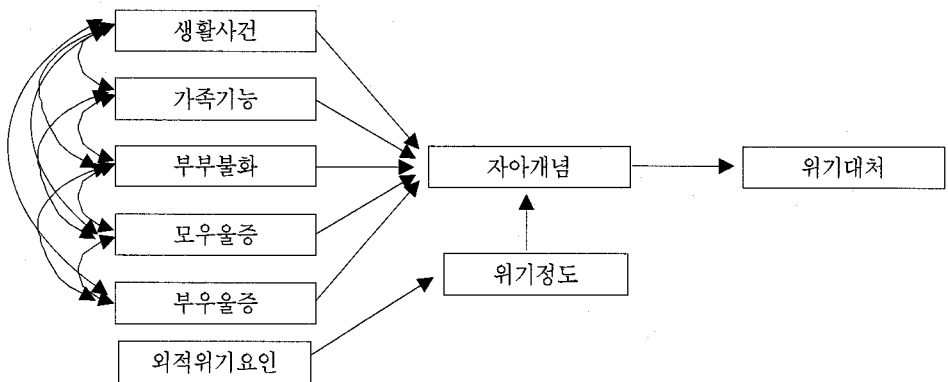
<연구문제 2>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외적 위기요인의 영향을 받은 위기정도는 위기대처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2-1. 외적 위기요인(부모의 학력, 부의 직업)에 따라서 위기정도(내적 위기요인을 합산한 값)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2-2.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외적 위기요인의 영향을 받은 가정의 위기정도는 위기대처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초등학교 남·녀 5, 6학년생으로, 학생 800명과 해당 학생의 학부모 800명, 총 1600명을 표집 하였다. 설문지 종류가 너무 많아(학부모 5종, 학생 2종) 학부모와 학생이 상호 연결되지 않거나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학생 500부, 학부모 500부를 합



* 내적 위기요인 - 생활사건, 가족기능, 부부불화, 부모우울증

* 외적 위기요인 - 부모의 학력, 부의 직업

* 위기정도 - 내적위기요인들의 정도를 합산하여 산출한 값

<그림 1> 연구모형

〈표 1〉 표집 대상

| 학년 | 학교 급지 별 학교(표집 학급 수) | | | |
|-----|---------------------|--------------|---------------|------------|
| | A급지 | B급지 | C급지 | 소 계 |
| 5학년 | DY교(2), P교(1) | Y교(3), B교(1) | DS교(2), K교(2) | 11학급 |
| 6학년 | DY교(1), S교(1) | Y교(3), B교(1) | DS교(2), K교(2) | 10학급 |
| 소 계 | 3개교 5학급 | 2개교 8학급 | 2개교 8학급 | 총7개교, 21학급 |

쳐 총 1000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집 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생으로 선정한 것은 대인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감정, 사고, 의도 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한 10세 이후이어야 한다(Selman, 1980; Cole, 1993)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시 교사 급지 별 전출 기준(2004)에 의하여 7개교 21학급을 A, B, C 급지별 골고루 표집 하였다. 부산시의 교사들 급지 별 전출 기준은 부산시내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전출 기준안이다. A급지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중상층 지역으로 아파트와 신도시 지역이며, B급지는 중하위층 지역으로 상업지역이거나 단독 주택과 서민 아파트 지역이며, C급지는 하위층 지역으로 부산시의 외곽에 위치하거나 변두리 지역이다. 본 연구 대상은 <표 1>와 같이 표집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 문제 해결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학부모 5종과 학생 2종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내적 위기요인

내적 위기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사건, 부정적인 가족기능, 부부불화,

우울증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사건 척도는 이선경(1997)이 이평숙(1984)의 생활사건 측정도구를 기본으로 하여 임정빈과 조혜정(1993)의 도구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척도로, 어머니에게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이평숙(1984)의 도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92이고, Cronbach's α 계수는 .61~.93으로 보고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산출치는 Cronbach's α 계수가 .86이었다. 본 척도의 총 문항 수는 42문항이다. 평정 방법은 지난 1년 동안 경험하였던 생활사건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에 따라 '경험하지 않았다(0점)', '경험하였으나 심각하지 않다(1점)', '경험하였으나 보통이다(2점)', '경험하였으며 매우 심각하다(3점)'으로 평점화 하였다. 총 점수범위는 0점에서 126점까지이며, 생활사건의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가 높은 가정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가족기능 척도는 Epstein 등(1983)이 제작한 McMaster 가족평가도구중 일반적인 가족기능 척도만을 번안한 것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Miller 등(1986)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산출치는 Cronbach α 계수가 .82이었다. 본 척도의 평정 방법은 2, 4, 6, 8, 10, 12번 문항은 '정말 그렇다(4점)', '대체로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1, 3, 5, 7, 9, 11번 문항은 역으로 상환하여 평점화하였다. 총 점수범위는 12점에서 4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

기가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불화 척도는 이선경(1997)이 Kelso와 그의 동료들(1984)이 제작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The Measure of Marital Satisfaction : MMS)를 번안하고 이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일부 수정한 척도로, 어머니에게 사용하였다. 일상 가족생활에서의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 수는 13번까지이나 10, 11, 12번 문항에 복수의 하위 문항으로 5개, 4개, 8개씩 구성되어 있어 어머니가 실제로 응답해야 하는 문항 수는 모두 26개 문항이 된다. 결혼 만족도 측정도구(MMS)의 신뢰도는 Kelso 등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산출치는 Cronbach's α 계수가 .89이었다. 본 척도의 평정 방법은 문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1번~6번, 9번 문항은 '①(1점)', '②(2점)', '③(3점)'으로, 7번과 8번 문항은 '없다(2점)', '있다(3점)'로 점수를 부여한다. 10번 문항은 전체 항목에서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다'이면 1점, '거의 항상 남편이 한다' 이거나 '거의 항상 내(어머니)가 한다'가 3항목 이상이면 3점, 그 외 응답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2점을 부여한다. 11번 문항은 전체 항목에서 '항상 일치하였다'이면 1점, '가끔 일치하였다'가 2항목 이상이면 3점, 그 외 응답이 혼합되어 있으면 2점으로 평정한다. 12번과 13번 문항은 '거의 항상 만족 한다'는 1점, '대체로 만족 한다'는 2점, '거의 만족하지 못 한다'는 3점으로 평점화하였다. 따라서 부부불화 척도는 전체 독립된 응답을 평정하는 총 문항수가 23문항이 되며 총 점수 범위는 25점에서 69까지이다. 부부불화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불화와 결혼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위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부모우울증의 척도는 이영호와 송중용(1991)가

Beck(1967)의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번안한 우울증 척도로 양부모 모두에게 사용하였다.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는 우울증의 유무뿐만 아니라 강도까지 척도가 가능한 도구로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우울 증상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산출치는 Cronbach's α 계수가 아버지 집단에서 .89와 어머니 집단에서 .91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평정 방법은 각 문항의 응답이 '0번(0점)', '1번(1점)', '2번(2점)', '3번(3점)'으로 채점하며, 총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우울증을 나타내고 위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외적 위기요인

외적 위기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이숙(1988)의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 중 부모의 학력과 부의 직업만을 측정하였다. 즉,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평점화하고, 평점화한 부의 직업과 학력의 점수를 합쳐서 이숙(1988)의 사회경제적 분류 기준에 의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분류하였다. 먼저 부모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나 졸업(1점)', '중학교 중퇴나 졸업(2점)', '고등학교 중퇴나 졸업(3점)', '대학 중퇴나 전문대 졸업(4점)', '대학교 졸업(5점)', '대학원 이상(6점)'으로 하여 부모의 학력 모두의 점수를 평정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직업은 가정에서 영향력이 더 높은 아버지의 직업을 평점으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무직(1번, 0점)', '단순 노무자(2번, 1점)', '피고용 기능인(3번, 2점)', '자영업자(4번, 3점)', '사무/기술직(5번, 4점)', '관리직(6번, 5점)', '전문직(7번, 6점)'으로 평정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에서 1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 위기정도

위기정도는 가정의 내적 위기정도를 의미한다. 내적 위기요인의 하위구성요인인 생활사건, 가족기능, 부부불화, 부모우울증의 정도를 합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그 총점에 따라서 상대적 위기정도로 판정한다.

4) 자아개념

본 척도는 고병채(1990)가 자작하여 개발한 일반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학문적 자아의 4가지 영역만을 포함하는 자아개념 척도로 학생에게 사용하였다. 자아 내용별 문항 구성은 일반자아 8개 문항(1~8번), 가정적 자아 12개 문항(9~20번), 사회적 자아 9개 문항(21~29번), 학문적 자아 16개 문항(30~45번)으로 총 45개 문항이다. 고병채의 자아개념 척도를 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신뢰도를 전체와 하위 변인별로 Cronbach's α 계수와 검사-재검사의 두 가지로 검증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일반자아는 .746, 가정적 자아는 .756, 사회적 자아는 .875, 학문적 자아는 .813이며 전체적으로는 .866로, 사회적 자아, 학문적 자아, 가정적 자아, 일반자아의 순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는 일반자아는 .766, 가정적 자아는 .783, 사회적 자아는 .864, 학문적 자아는 .853로, 가정적 자아, 학문적 자아, 일반적 자아, 사회적 자아 순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 응답과 평정 방법은 4점 Likert식 척도로 2번에서 45번까지는 '자주 그렇다(4점)', '대개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2점)', '전연 아니다(1점)'으로 평정하며, 1번과 14번은 역으로 상환하여 평정하였다.

5) 위기대처능력

본 척도는 연구자가 강미경(1997)이 변안한

Paul G. Stoltz의 성인용 위기대처능력 척도를 초등학교생에게 적합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성인용 위기대처능력을 초등학교생용 척도로 활용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문항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Cronbach's α 계수는 .82이었으며, 89명의 학생에게 3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 = .86$ 이었다. 본 척도는 5점 의미미분법 형식으로 위기대처지수(Adversity Quotient : AQ)의 점수로 위기대처능력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척도의 구성은 통제력(Control : C), 근원-Origin : Or), 주인의식(Ownership : Ow), 범위-Reach : R), 지속성(Endurance : R)의 5가지(CO2RE)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20문항에 하위문항 2개씩을 더하면 총 40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는 AQ로 학생의 종합적인 위기대처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므로, 문항별 평점을 합산한 총점(AQ=C+Or+Ow+R+E)으로 위기대처능력을 판정하였다. 즉, 응답이 1번이면 1점으로 하여 그 평점들을 합산한 점수를 AQ로 하였으며, AQ의 총점수 범위는 40~200점으로 AQ의 총점에 따라 학생의 위기대처능력을 점수화 하였다. 척도의 응답 방법은 문항의 내용들이 실제로 경험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응답한다. 설문지 응답지의 숫자 1, 2, 3, 4, 5는 점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왼쪽의 1부터 오른쪽의 5까지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설문지의 응답란에 ○표를 하도록 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통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표 2> 위기요인,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모형 적합도

| 적 합 도 | 지 수 | 적합기준 | 적합수준 |
|--|-------|----------------|------|
| χ^2 | 4.380 | $p>.05 (df=5)$ | 적 절 |
| GFI(Goodness of Fit Index) | .998 | >.90 | 적 절 |
|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86 | >.90 | 적 절 |
| NFI(Normed Fit Index) | .995 | >.90 | 적 절 |
|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0 | <.05 | 적 절 |

표집대상은 2004년 4월 12일부터 5월 11일 까지 한 달간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 설문지 2종은 2일간 두 번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날은 위기대처능력 설문지를 측정하였으며, 둘째 날은 자아개념 설문지를 측정하였다. 학부모용 설문지 5종은 설문지 응답 학생의 학부모에게 가정통신으로 보내어져 3일 후에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학생용 800부, 학부모용 800부였다. 설문지 종류(학부모용 5종, 학생용 2종)가 많아서 학부모와 학생의 상호 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응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면 총 1000부만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의 기초분석은 SPSS for Win 12.0을 사용하였고, 변인들간의 인과모델 분석은 AMOS 5.0을 사용하였다. 즉, 변인들간의 인과모델 분석은 AMOS 5.0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변인간의 경로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하고, 경로간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에 하위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판단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한 내적위기요인이 위기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1) 내적위기요인,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 분석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한 내적위기요인(생활사건, 가족기능, 부부불화, 부모우울증)이 위기대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로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표 2>는 세 변인간의 경로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한 것이며, <표 3>은 경로간의 유효성을 검증한 것이고, <표 4>는 위기요인을 이루는 하위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판단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2>에서 모델 적합도를 나타내는 χ^2 통계량이 4.380으로 $p>.05$ 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경로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GFI, AGFI, NFI의 지수가 1에 근접하고, RMSEA 지수가 .05 이하로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은 경로모형을 이루는 위기요인,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상호영향을 비표준화계수(B)와 표준화계수(B)로 나타내고, 기각비(C.R Critical Ratio)로 계수의 유효성을 검증한 것이다.

<표 3>에서 위기요인의 하위 구성요소와 자아

〈표 3〉 위기요인,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분석

| 경로 | B | B | S.E. | C.R. |
|----------------|-------|-------|------|----------|
| 자아개념 <--- 생활사건 | -.088 | -.078 | .058 | -1.50 |
| 자아개념 <--- 가족기능 | -.474 | -.154 | .179 | -2.644** |
| 자아개념 <--- 부부불화 | .082 | .034 | .151 | .543 |
| 자아개념 <--- 모우울 | .041 | .020 | .116 | .354 |
| 자아개념 <--- 부우울 | -.021 | -.009 | .123 | -.174 |
| 위기대처 <--- 자아개념 | .313 | .336 | .039 | 7.978*** |

개념, 위기대처간의 경로분석에서 모든 구성요인들 간의 경로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일부 경로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위기요인 하위요소 중 가족기능과 자아개념간의 경로가 각각 1.96보다 커 그 관계의 경로가 유효하고, 위기대처와 자아개념의 경로 또한 C.R=7.978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요인들 간의 경로 분석 결과를 통해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과 같다.

2) 내적위기요인의 하위요인간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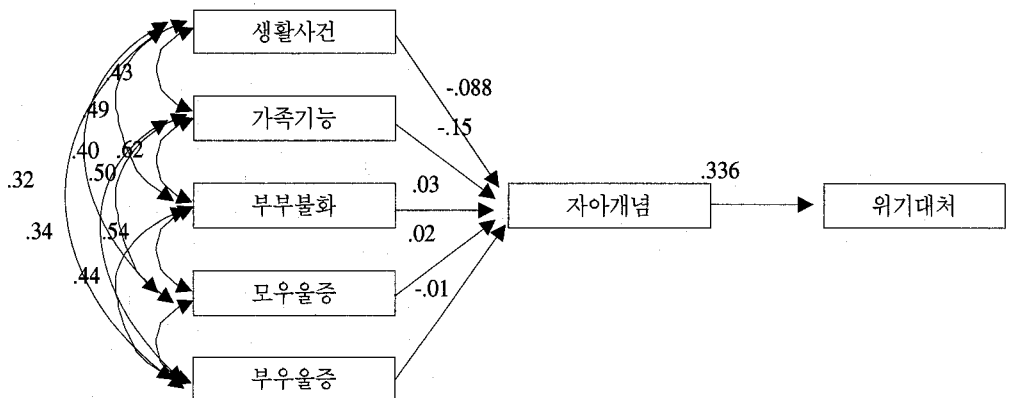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내적위기요인의 하위요인으로 생활사건, 가족기능, 부부불화, 부우울증, 모우울증을 설정하였다. 이들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

〈표 4〉 위기요인간의 공변량 분석

| 경로 | 공변량 | R | S.E. | C.R. |
|----------------|--------|------|-------|-----------|
| 생활사건 <--> 가족기능 | 38.398 | .425 | 4.394 | 8.739*** |
| 생활사건 <--> 부부불화 | 57.015 | .494 | 5.766 | 9.888*** |
| 생활사건 <--> 모우울 | 54.323 | .400 | 6.554 | 8.288*** |
| 생활사건 <--> 부우울 | 37.889 | .324 | 5.508 | 6.879*** |
| 가족기능 <--> 부부불화 | 25.977 | .617 | 2.214 | 11.732*** |
| 가족기능 <--> 모우울 | 24.687 | .498 | 2.478 | 9.963*** |
| 가족기능 <--> 부우울 | 14.453 | .339 | 2.016 | 7.168*** |
| 부부불화 <--> 모우울 | 34.436 | .544 | 3.228 | 10.668*** |
| 부부불화 <--> 부우울 | 24.151 | .443 | 2.671 | 9.043*** |
| 모우울 <--> 부우울 | 30.184 | .470 | 3.176 | 9.503*** |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적위기요인의 하위 구성요인간의 경로분석에서 각 위기요인간의 C.R의 기각값이 모두 1.96 이상이며, 하위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R값으로 분석해 보면 R=.3~.6 이상으로 그 관계의 정도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정의 내적위기요인간의 C.R의 기각값이 1.96 이상이고 상관도는 R=.3~.6 이상이다. 따라서 내적위기요인의 하위 구성요인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내적위기요인은 부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그림 2〉 위기요인, 자아개념, 위기대처간의 경로모형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판단될 수 있다.

3)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한 내적 위기요인이 위기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3>을 보면, 내적위기요인,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분석에서 모든 하위요인들 간의 경로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일부 경로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기각비의 값(C.R)으로 비교해보면, 이들 중 가족기능에서 자아개념으로 경로와 위기대처능력에서 자아개념의 경로만 기각값 1.96보다 커 그 관계의 경로가 유효하며, 경로들간의 관계 정도를 표준화계수(B)로 보면, 생활사건에서 자아개념으로 $B=-.078$, 가족기능에서 자아개념으로 $B=-.154$, 자아개념에서 위기대처능력으로는 $B=.313$ 으로 통계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자아개념에 대하여 가족기능($B=-.154$), 생활사건($B=-.078$) 부우울증($B=-.009$)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영향력이 적을수록 학생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으로 형성되며, 그 결과 위기상황에서 학생은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유효하지 않은 경로로 자아개념에 미치는 생활사건($B=-.078$), 부부불화($B=.034$)과 부우울증($B=-.009$), 모우울증($B=.020$)이다. 이들 요인들은 자아개념과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표 4>에서 하위 구성요

인간의 유의미한 상관으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위기요인과 자아개념과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가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하위요인인 내적 위기요인의 구성요인 간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외적 위기요인의 영향을 받은 위기정도가 위기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외적 위기요인의 영향을 받은 가정의 위기정도가 위기대처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외적 위기요인은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가정의 위기정도는 내적 위기요인을 구성하는 생활사건, 가족기능, 부부불화, 부모우울증의 정도를 합산하여 산출한 값이다.

1) 외적위기요인, 위기정도,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분석

외적 위기요인, 위기정도,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 상호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다. <표 5>는 변

<표 5> 외적 위기요인, 위기정도,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모형 적합도

| 적합도 | 지수 | 적합기준 | 적합수준 |
|--|--------|-----------------|------|
| χ^2 | 20.090 | $p>.05 (df=12)$ | 적 절 |
| GFI(Goodness of Fit Index) | .999 | >.90 | 적 절 |
|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74 | >.90 | 적 절 |
| NFI(Normed Fit Index) | .975 | >.90 | 적 절 |
|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37 | <.05 | 적 절 |

<표 6> 외적 위기요인, 위기정도, 자아개념, 위기대처 능력간의 경로분석

| 경로 | B | B S.E. | C.R. |
|------------------|--------|------------|-----------|
| 위기정도 <---외적 위기요인 | -2.548 | -.259 .425 | -5.992*** |
| 자아개념 <---위기정도 | -.065 | -.125 .022 | -2.904** |
| 위기대처 <---자아개념 | .313 | .336 .039 | 7.967*** |

인들 간의 관계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것이고, <표 5>은 경로모형 내에서의 변인들 간의 상호 경로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한 것이다. <표 5>에서 모델 적합도를 나타내는 χ^2 통계량이 20.090으로 $p>.05$ 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경로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 다른 판정 기준으로 GFI, AGFI, NFI의 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고, RMSEA 지수 또한 .0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는 외적 위기요인, 위기정도,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 간의 상호 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표 6>에서 외적 위기요인, 위기정도,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상호 경로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든 요인간의 경로가 유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표 6>의 경로모형을 이루는 외적 위기요인, 위기정도,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상호 영향력을 비표준화계수(B)와 표준화계수(B)로 나타내고, 기각비(C.R)로 계수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여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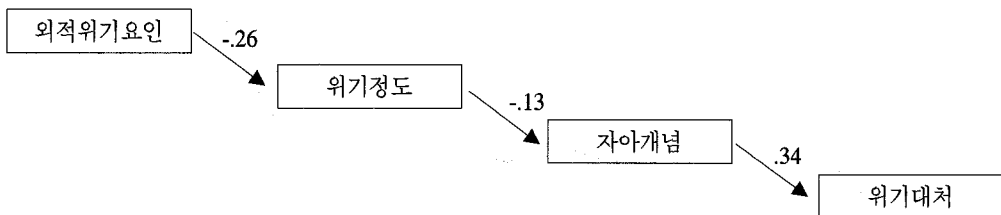
서 기각비의 값이 1.96 이상이면, 그 인과계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표 6>을 보면 외적 위기요인, 위기정도,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 분석에서 모든 구성요인들 간의 경로가 기각값 1.96보다 커 그 관계의 경로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외적 위기요인, 위기정도,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 모형에서 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들을 경로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적 위기요인, 위기정도,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모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2) 외적 위기요인에 따른 위기정도(내적 위기요인의 합산한 값)의 차이

외적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은 부모의 학력과 부의 직업이며, 위기정도와 관련있는 내적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은 생활사건, 가족기능, 부부불화, 부모우울증이다. 먼저 외적 위기요인 중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내적 위기요인은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변량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

내적 위기요인은 부모의 학력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일 경우 각 요인별 위기 점수를 보면 생활사건 M=24.56, 가족 기능 M=21.47, 부부 불화 M=45.29, 부모우울증 M=9.85, 모우울증 M=11.4로



<그림 3> 사회경제적 지위, 위기정도,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모형

〈표 7〉 부모의 학력에 따른 내적 위기요인과의 차이

| 집 단 | N | 내적 위기요인 | | | | | | | | | | |
|-----|----------|---------|---------|-------|---------|------|--------|-------|-----------|-------|---------|------|
| | | 생활사건 | | 가족기능 | | 부부불화 | | 부 우울증 | | 모 우울증 |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부 | 고졸이하 | 257 | 24.56 | 16.97 | 21.47 | 6.12 | 45.29 | 7.70 | 9.85 | 8.17 | 11.41 | 9.11 |
| | 전문대졸 | 79 | 19.14 | 12.33 | 19.56 | 5.47 | 43.58 | 6.85 | 7.66 | 5.75 | 9.21 | 7.58 |
| | 대졸이상 | 164 | 19.51 | 14.64 | 19.66 | 5.02 | 43.40 | 6.85 | 6.25 | 6.37 | 8.61 | 8.09 |
| | <i>F</i> | | 6.915** | | 6.543** | | 3.980* | | 12.635*** | | 5.903** | |
| 모 | 고졸이하 | 338 | 23.45 | 16.14 | 21.04 | 6.00 | 44.92 | 7.48 | 9.16 | 7.80 | 10.86 | 8.90 |
| | 전문대졸 | 66 | 20.70 | 14.98 | 19.51 | 5.08 | 43.77 | 6.71 | 6.92 | 5.61 | 9.06 | 6.67 |
| | 대졸이상 | 96 | 18.04 | 14.21 | 19.67 | 5.03 | 43.01 | 7.12 | 6.32 | 6.76 | 8.35 | 8.66 |
| | <i>F</i> | | 4.764** | | 3.459* | | 2.828 | | 6.944** | | 3.790* | |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문대졸이상은 모든 영역에서 고졸이하보다 점수가 낮다. 부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을수록 내적 위기요인은 낮으며, 내적 위기요인의 유의미한 차는 부우울증($F=12.635, p < .001$)>생활사건($F=6.915, p < .01$)>가족기능($F=6.543, p < .01$)>모우울증($F=5.903, p < .01$)>부부불화($F=3.980, p < .05$)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의 학력에 따른 내적 위기요인의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내적 위기요인의 영향은 높으며, 그 영향력의 차는 부우울증($F=6.944, p < .01$)>생활

사건($F=4.764, p < .01$)>모우울증($F=3.790, p < .05$)>가족기능($F=3.459, p < .05$)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학력에 따른 부부불화($F=2.828$)는 유의미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내적 위기요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보다 부의 학력이 내적 위기요인에 미치는 차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의 직업에 따른 내적 위기요인의 차이에 대하여 통계적 결과를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에 의하면, 부의 직업에 따라 내적 위기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 8〉 부의 직업에 따른 내적 위기요인의 차이

| 집 단 | N | 위 기 요 인 | | | | | | | | | | |
|-----|------------|---------|-----------|-------|-----------|-------|----------|-------|----------|-------|-----------|------|
| | | 생활 사건 | | 가족 기능 | | 부부 불화 | | 부 우울증 | | 모 우울증 |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부 | 무직, 단순 노무자 | 46 | 32.85 | 17.85 | 24.91 | 6.39 | 48.43 | 5.84 | 11.54 | 7.52 | 14.78 | 8.88 |
| | 피고용 기능인 | 78 | 25.71 | 15.77 | 22.02 | 5.84 | 46.65 | 7.33 | 10.17 | 8.09 | 13.19 | 9.81 |
| | 자영업자 | 158 | 22.16 | 15.86 | 20.36 | 5.89 | 44.72 | 7.13 | 9.20 | 7.63 | 10.43 | 8.19 |
| | 사무 기술직 | 138 | 19.35 | 13.92 | 19.36 | 4.71 | 42.80 | 6.95 | 6.87 | 6.66 | 8.13 | 8.06 |
| | 관리직, 전문직 | 80 | 16.71 | 13.63 | 19.17 | 5.15 | 42.02 | 7.68 | 5.44 | 6.16 | 7.41 | 7.12 |
| | <i>F</i> | | 10.510*** | | 11.476*** | | 9.759*** | | 8.732*** | | 10.374*** | |

* $p < .05$ *** $p < .001$

나타났다. 즉, 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피고용
기능인>자영업자>사무기술직>관리직, 전문직
일수록 내적 위기요인의 영향력은 높게 나타났
으며, 내적 위기요인 중에서도 가족기능
($F=11.476, p<.001$)>생활사건($F=10.510, p<.001$)>
모우울증($F=10.374, p<.001$)>부부불화($F=9.759,$
 $p<.001$)>부우울증($F=8.732, p<.001$)의 순서로 유
의미한 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6>에서
외적 위기요인이 내적 위기요인들의 합산값인
위기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B=-2.548$ 로 부적효과
를 나타내는데, 이는 외적 위기요인(부모의 학
력, 부의 직업)이 낮을수록 가정의 위기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표 6>과 <표 7>,
<표 8>에서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의 위
기는 높으며, 모의 학력보다 부의 학력이 가정의
위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
고, 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일 때 가정의 위기
정도가 가장 높고, 관리·전문직에 가까울수록
가정의 위기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외적 위기 요인의 영향을 받은 가정의 위기정도가 위 기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6>에서 외적 위기요인, 위기정도, 자아개
념, 위기대처간의 상호 경로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든 요인간의 경로가 유효한 것
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외적 위기요인은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개념은 위기대처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외
적 위기요인은 가정의 위기정도에 미치는 영향
력이 $B=-2.548$, 위기정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B=-.065$, 자아개념이 위기대처능력에 미
치는 영향은 $B=.313$ 으로, 외적 위기요인, 위기정
도,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영향력은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경로간 관계
정도를 표준화계수(B)로 비교해보면, 자아개념
에서 위기대처능력으로의 경로가 $B=.336$,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위기정도로의 경로가 $B=-.259$,
위기정도에서 자아개념으로의 경로가 $B=.125$
로 자아개념에서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가 가장
높고, 위기정도에서 자아개념으로의 경로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6>의 분
석에서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경로가 있다. 즉, 외
적 위기요인이 가정의 위기정도에 미치는 영향
력과 위기정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 즉, 외적 위기요인이 위기정도에 미치는 부
적 효과 $B=-.259$ 로, 이는 외적 위기요인(사회경
제적 지위요인)이 낮을수록 가정의 위기정도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위기정도가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부적 효과($B=-.125$)
를 갖는데, 이는 위기의 수준이 낮을수록 학생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정의 위
기정도가 낮고 학생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
은 가정일수록 가정의 위기정도가 높고 이러한
가정의 학생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
며,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학생은 위기상황에
서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위기대처능력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위기정도의 영향을 받은 자아개념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방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
인적 특성(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초등
학생의 가정 환경적 요인(내적 위기요인, 외적

위기요인)이 위기에 대하여 어떠한 방어적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위기요인의 하위구성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적위기요인의 영향을 받은 자아개념이 위기대처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론은 가정의 내적위기요인인 생활사건, 가족기능, 부부불화, 부모우울증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판단된다. 그리고 내적 위기요인과 자아개념과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가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하위요인인 내적위기요인의 구성요인간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 가정의 위기요인에 영향을 받은 아동의 자아개념은 아동이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적 위기요인, 자아개념, 위기대처능력간의 경로분석에서 모든 구성요인들 간의 경로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일부 경로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내적 위기요인의 하위요인 중 생활사건과 가족기능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효하나 부부불화, 부모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내적 위기요인의 하위 구성요인간의 상호 관련성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 모든 하위요인들이 인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과성이 높은 요인들 간의 관계 모델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적위기요인(사회경제적 지위)이 위기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외적위기요인(사회경제적 지위)과 위기정도의 영향을 받은 자아개념이 위기대처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론은 외적 위기요인이 낮을수록(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정의 위기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과 직업이 낮을수록 가정의 위기는 높으며, 모의 학력보다 부의 학력이 가정의 위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위기정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인 위기요인이 낮을수록(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위기정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이며 위기 상황에 대하여 잘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학생의 외적 위기요인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요인 중 부모의 학력과 부의 직업만을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 자녀수를 설정하여 진행하였으나 결과 분석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제외시켰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요인의 하위 구성요인(학력, 직업, 수입, 가족 수 등)과는 차이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위 구성요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좀 더 변별력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여건으로 충실하게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본 연구 결론의 일반화를 부분적으로 제약하였던 점은 표집을 부산시내로 지역을 제한하였으며,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성별·학년을 구분하지 않았고, 양부모가 모두 있는 학생으로 제한하였으며, 부모의 직업 중 부의 직업만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론을 해석하고 일반화시킬 때는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넷째, 검사 실시에서 설문지의 종류가 많아 검사자의 피로감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처음 표집대상자의 인원이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612명이었으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아 분석

에서 제외된 설문지의 수가 각각 112명씩 모두 224부나 되어 설문지 작성의 한계점을 안게 되었다.

다섯째, 설문지 응답 요령에 대한 효율적인 안내 방법이다. 표집 학반의 담임과 사전에 면담하여 충분한 응답 요령과 회수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전달이 잘못되어 설문지 오답이 많았다. 즉, 부모의 직업을 응답하는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부의 직업만을 기재하여 부모 모두의 직업을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내적·외적 위기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과 방법적 측면에서 학생의 위기대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위기대처능력 설문지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울러 다음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학생들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으로 위기요인 면에서 처음부터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다음의 부분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아동들의 위기대처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환경에 대한 연구, 둘째,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대한 연구, 셋째, 개인별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방어적 요인의 깊이 있는 연구 등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경, 율김(1997). 위기대처능력 AQ(Adversity Quotient, Paul G 지음). 서울 : 세종서적.
- 고병채(1990). 자아개념, 귀인성향,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간의 상호관계 및 그 변인들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인섭(1993). 인감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 양서원.
- _____(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 학지사.
- 신민섭 · 김중술 · 박광배 (1993).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분할점과 분류 오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71-18.
- 이선경(1997).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 모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호 ·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10(1), 98-113.
-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미숙(1993).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eardlee, W. R., & Podorefsky, D.(1988). Resilient adolescents whose parents have serious affective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 Importance of self-understanding and relationship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 63-69.
- Beck, A. T.(1967).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 Harper & Row.
- Benard, B.(1991). *Fostering resiliency in kids : Protective factors in the family, school, and community*(Report No. EA 023 260). Washington, D.C : Western Center for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5 781).
- Benard, B.(1993). Turning the corner : From risk to resiliency. *A compilation of articles from the Western Center News*. Drug Free Schools and Communities(ERIC Document eproduction Service No. ED 364 981).
- Berlin, R.(1989). *Children from alcoholic families :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The Child in Our Times :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Resiliency*.

- New York : Brunner-Mazel.
- Bradley, R. H., Whitehead, L., Mundfrom, D. J., Casey, P. H., Kelleher, K. K., & Pope, S. K.(1994). *Early indications of resili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experience in the home environments of low birthweight, premature children living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65*, 346-360.
- Cole, M., & Cole, S.(1993).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nd Eds.)*. NY : Science American Boos.
- Cooley, C. H.(1920).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Scribner.
- Cooley, C. H.(1930). *The development of sociology of Michigan. In Angell, R.G.(Ed.), Sociology theory and practice (pp. 3-19)*. New York : Holt.
- Eastwood, A.(1979). 적응심리. (김인자 역). 서울 :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Epstein, N. B., Baldwin, L. M., & Bishop, D. S.(1983).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171-180.
- Gaerbarino(1992).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In Prevention in Mental Health :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ed. by Richard Price. Beverly Hills, CA : Sage.
- Garnezy, N.(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Book Supplement No. 4*(pp. 213-233). Oxford Englan d : Pergamon Press.
- Garnezy, N.(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416-430.
- Garnezy, N., & Masten, A. S.(1986). *Stress, competence, and resilience : Common frontiers for therapist and psychopathologist. Behavior Therapy, 17*, 500-521.
- Garnezy, N., & Rutter, M.(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t in children*. New York : McGraw-Hill.
- Gecas, V.(1979).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socialization. In. W. Burr, R. Hill, F. Nye, & I.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 Research-based theories : Vol. 1*(pp. 365-404). New York : Free Press.
- Heyman, G. D., & Gelman, S. A.(2000) Beliefs about the origins of human psychological traits. *Developmental Psychology, 36*(5), 663-678.
- Kazdin, A. E.(1993). Adolescent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8*, 127-141.
- Kelso, J. Stewart, M. A., Bullers, L., & Eginton, R. (1984). The Measure of Marital Satisfaction : A questinnmaire to screen to screen parents for marital problem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5*, 86-103.
- Miller, A.(1986). Performance impairment after failure : Mechanism and sex differences. *Journal Educational Psychology, 78*, 486-491.
- Miller, E. W., Epstein, N. B., Bishop, P. S., & Keitner, G. I.(1986).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345-356.
- Patricia, K. S.(1996).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Style, Locus of Control and Family Attributes on the Reciiency of At-Risk Intermediate Grade School Children.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hlifornia*.
- Rog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ter, M.(1984). *Resilient children. Psychology Today, 57-65*.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eifer, R., et al.(1992). Child and family factors that ameliorate risk between 4 and 13 years of ag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 Adolescent Psychiatry*, 31, 893-903.
- Selman, R. L.(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ew York : Academic Press.
- Shavelson, Hubner, Stanton(1976). Self-concept :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 Research*, 46, 407-441.
- Simons, R. L., Lorenz, F. O., Wu, C., & Conger, R. D. (1992). Marital and spouse support as mediator and moderator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 Psychology*, 29, 368-381.
- Werner, E. E.(1982).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1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4, 34-40.
- _____.(1984). Resilient children. *Young Children* 4(1) : 68-72.
- _____.(1989). High-risk children in adulthood :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 Werner, E. E., & Smith, R.(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 Adams, Bannister, and Cox.
- _____.(1992). *Overcoming the odds :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 Y. : Cornell University Press.
- Winfield, L. F.(1994). *Developing resilience in urban youth*. North Central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Oak Brook, IL.
- Wolin, S., & Wolin, S.(1993). *The resilient self : Survivors of families facing adversity*, New York : Random House.
- White, K.(1982). The relation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ical Bulletin*, 91, 461-481.

2005년 8월 28일 투고 : 2005년 11월 24일 채택